

보도일시 (인터넷) 2024. 1. 23.(화) 06:00,
(지면) 2024. 1. 23.(화) 석간

배포 2024. 1. 22.(월) 14:00

항만개발을 통한 물류 공급망 확충에 민간참여 확대한다

- 1. 23.(화) 사업자 선정 절차를 신설한 「신항만건설 촉진법」 개정안 공포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1월 23일(화) 「신항만건설 촉진법」(이하 「신항만건설법」)의 일부개정안이 공포되었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항만 수요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항만개발절차 단축 등의 내용을 포함한 「신항만건설법」을 제정(1996)하고 이에 따라 신항만을 개발*해 왔다. 그러나, 이 법에는 신항만건설을 위한 사업자 선정 절차가 없어 그간 민간은 「항만법」,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등을 근거로만 항만개발에 참여할 수 있었다.

* 전국 12개소 지정.개발 : 부산항 신항, 광양항, 인천신항, 인천북항, 울산신항, 포항영일만항, 보령신항, 평택.당진항, 새만금신항, 목포신항, 제주신항, 동해신항

이에, 해양수산부는 「신항만건설법」을 개정하여 항만개발 사업자 선정 방식(경쟁 입찰방식)을 최초로 도입하였다. 이를 통해 민간 투자 유도는 물론이고, 민자 사업 추진을 위한 소요 기간도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희망업체가 다수인 경우에도 적용 가능하여 민간의 공정한 참여 기회도 보장한다.

이와 더불어, 이번 「신항만건설법」 개정안에서는 도시·군관리계획 인허가 의제 대상시설을 비(非)항만시설(공원, 도로 등)로 확대하고, 보상업무 위탁기관을 정비하는 등 운영상 미비점도 보완*하였다. 해양수산부는 6개월 후 개정안 시행에 앞서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세부평가 절차 등을 규정할 방침이다.

* 의제 대상시설에서 항만시설 한정 문구 삭제, 「토지보상법」 내 전문기관까지 확대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신항만은 전국 컨테이너 물동량 중 70% 이상을 처리하며 공급망 핵심거점 역할을 수행한다.”라며, “「신항만건설법」 개정으로 민간참여 확대, 사업 주체 다변화, 신항만건설사업 절차 효율화가 가능해져 물동량 확대, 고용 창출, 해외 자본 유치 등 다양한 경제적 효과가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담당 부서	항만국	책임자	과 장	황상호 (044-200-5930)
	항만개발과	담당자	사무관	노소영 (044-200-5941)

참고

개정안 주요내용 및 신행만 개요

□ 개정안 주요내용

- ① 민간사업자의 객관적인 평가·선정을 위해 신행만건설사업의 사업시행자를 경쟁입찰방식으로 선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마련

* 그간 객관적인 선정 절차가 규정되어 있지 않아 정부 위주로만 시행자를 지정하여 신행만개발

- ② 타법률 의제 대상시설 확대 등 인허가 절차 간소화

* (국토계획법 인허가) (현행) 항만시설로만 한정 → (개정) 항만시설 한정 문구 삭제

** (항만법 인허가) (현행) 없음 → (개정) 비관리청 항만개발시행허가, 실시계획 승인 등

- ③ 신행만건설사업 시 토지매수 등 보상업무를 「토지보상법」 관련 전문 기관에게 위탁하는 근거 조항을 정비*하여 법령 해석 혼란 해소

* (현행) 보상기관이 지자체로만 규정→ (개정) 토지보상법에 따른 기관의 장(지자체, 전문기관 등)

□ 전국 신행만 현황 및 개발계획

인천 북항	'99년 (지정 연도)	광양항	'97년
인천 신항	'07년	부산항 신항	'97년
평택· 당진항	'97년	울산 신항	'99년
보령 신항	'97년	포항 영일만항	'97년
새만금 신항	'10년	동해 신항	'19년
목포 신항	'97년	제주 신항	'19년

인천신항, 인천북항
 목표: 대중국수도권물류거점 항만
 사업비: 2.3조(재정1.5조, 민자0.8조)
 내용: 컨테이너부두(5) 등

평택·당진항
 목표: 앞줄형 산업지원 항만
 사업비: 2.8조(재정1.2조, 민자1.6조)
 내용: 화물부두(17) 등

보령신항
 목표: 미래 대비 항만
 사업비: 0.1조(재정0.1조)
 내용: 항만시설용부지(55만㎡) 등

새만금신항
 목표: 환황해권 지역거점 항만
 사업비: 2.9조(재정1.6조, 민자1.3조)
 내용: 화물·크루즈부두(9) 등

목포신항
 목표: 재조 기반산업 지원항만
 사업비: 0.4조(재정0.2조, 민자0.2조)
 내용: 화물부두(2), 해양정비장 등

광양항
 목표: 아시아의 로테르담 모델로 개발
 사업비: 7.3조(재정3.3조, 민자4.0조)
 내용: 유류부두 등(4), 복합산업물류단지 등

제주신항
 목표: 해양관광허브항만
 사업비: 2.9조(재정1.8조, 민자1.1조)
 내용: 크루즈·여객부두(13) 등

동해신항
 목표: 산업원자재 수출입 전진기지
 사업비: 1.4조(재정0.9조, 민자0.5조)
 내용: 화물부두(7), 도로·철도(9km) 등

포항영일만항
 목표: 배후산업 지원항만(기계, 철강)
 사업비: 1.4조(재정1.0조, 민자0.4조)
 내용: 화물, 여객 부두(10), 구항 기능이전(배경, 모래) 등

울산신항
 목표: 동북아 에너지허브항만
 사업비: 6.8조(재정3.3조, 민자3.5조)
 내용: 에너지 처리부두(10), 배후산업 지원부두(3) 등

부산항 신항
 목표: 동북아 Mega Port
 사업비: 13.6조(재정5.2조, 민자8.4조)
 내용: 제2신항(21선석), 신항(13선석), LNG항커워터미널 등